

기아차 광주공장 올 53만대 생산 사상 최대

62만대 증산 첫 해...작년보다 5만대 늘려 무재해 달성 등 '새해 5대 경영방침' 선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해 53만대의 생산목표를 확립했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본격 가동되는 첫 해인 올해, 지난해보다 5만대 가량 생산대수를 늘려 잡은 것. 53만대 생산을 달성하게 되면 기아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성공장과 맞먹는 생산량을 기록하게 돼 기아차의 핵심 '생산기지'로 올라선다.

19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생산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53만대로 정하고, 사상 최대의 생산량 기록 도전에 나섰다. 늘어난 생산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된다면 광주공장의 수출 전략 차종인 스포티지R과 올뉴 쏘울의 생산량은 올해 35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아차의 전 차종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스포티지R은 15만9525대가 생산됐으며 북미 시장에서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쏘울도 15만6831대가 출고돼 두 차종은 31만6356대로 지난해 광주공장의 총 생산대수 47만9880대의 65.9%를 차지했다. 두 차종 모두 해외시장에서 인기 상품에 있어 올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광주공장의 매출 또한 1조원 대 상승이 기대된다. 또 최근 광주공장 노사가 봉고트럭의 UPH(Unit per Hour·시간당 생산대수)를 기존 23.1UPH에서 25.1UPH로 늘리기로 합의해 봉고트럭 생산



19일 광주 무등산 장봉재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014 사업목표 결의대회'에서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 및 임직원들이 목표달성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량도 지난해 9만7734대에서 올해에는 연간 8000대 가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생산목표 외에도 '즐거운 상상의 시작 광주공장에

서'를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Talent, 창의적인 업무주도', 'Rule,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 'Vision, 최고지향 성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5대 운영방침

으로는 ▲생산목표 53만대 달성 ▲현장품질 실행력 확보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자율안전활동으로 무재해 달성 ▲상호협력력을 위한 화합과 존중 등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 500여명은 이날 무등산 장봉재에 올라 새롭게 맞이한 2014년도의 사업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2014년은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생산인 53만대 달성을 통해 우리 광주공장이 더욱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역대 최고생산대수는 2011년의 48만8154대(매출 8조5000억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민·롯데·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금융당국 일문일답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보도 털려 카드 부정사용 피해 발생하면 보상”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감독 당국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의 최 부원장, 박세춘 부원장보, 류찬우 여신전문검사실장, 정인화 개인정보보호실장과의 일문일답.

-신재운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정보도 유출된 게 사실인가.

▲(박세춘 부원장보)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은 고객정보가 유출됐기에 분명히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으로 예상된다. 신용도 조사나 대출 한도 상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 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정보가 유출됐다.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박세춘 부원장보) 이전에 유출된 정보에는 해지고객이나 휴면계좌, 법인고객도 일부 포함됐다.

▲(류찬우 여신전문검사실장) 카드사의 경우 해지고객에 대해 5년간 관련 정보를 보유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폐기하게 돼 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공개됐을 때 가능한 2차 피해는 무엇인가.

▲(박세춘 부원장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흡소빙, 방문판매, 보험판매 등 전화승인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휴대전화 SMS 인증을 받거나 패스워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대부분 차단된다. 카드사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부정사용 발생시 보상되는가.

▲(박세춘 부원장보) 다 보상된다.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전화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와 카드 재발급에 걸리는 시간 등 무유형의 피해에 대해 카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박세춘 부원장보) 직접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은 과거 유사 판례나 인과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소수 비대면거래의 개연성만 갖고 무조건 재발급해주는 것은 현실성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환뉴스

신안천사김, 작년 175억원 어치 美 수출

아시아 유일 코스트코 PB 상표로...전남김 수출 효자 자리매김

김이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의 수출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4448만6000 달러로 전년 2507만9000 달러보다 77.4%나 증가했다. 2010년에는 816만8000 달러에서 이듬해 1239만8000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증가를 신규 수출국 개척 등 수출 다변화와 적극적인 현지화(現地化)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일반적인 김

형태가 아닌 스낵 형태로 생산 수출했으며 태국에는 현지 전통 음식맛을 첨가한 제품을 내보내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 전남도가 투자유치한 '신안천사김'의 조미김은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코스트코 자체 상표(PB)인 '커클랜드' 브랜드를 달고 175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코스트코의 PB식품 가운데 아시아 기업이 만드는 것은 신안 조미김이 유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

기집체가 장기화되고 현지 현상으로 수산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김 수출 호조는 큰 의미가 있다"며 "수출구조 다변화, 현지 여건을 잘 활용한 맞춤형 대응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김 양식 어가는 3433가구로 전국(4928가구)의 70% 가량을 차지하며 면적 또한 4만9401ha로 전국(5만4737ha)의 90.3%에 달한다. 생산액이 4100억원에 이르는 지역 간판 수산물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층매장을 찾은 모녀가 신학기 학생용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2007년 '황금돼지띠'에 출생한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에 맞으면서, 신학기 가방은 평년보다 25% 이상 매출이 올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일하는 20대 매년 10만명 ↓...늘어가는 한국경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 구직자의 업종 편에 현상,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 등 청년 고용시장의 변화와 구직자와 기업간 상호 기대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일하는 20대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전인 2004년 66.3%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작년 61.6%까지 하락했다. 2004년에는 707만명 가운데 469만명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2013년에는 628만 5000명중 387만4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9년만에 82만명이 감소해 매년 10만명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대조적으로 학업이나 가사, 심신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있지 못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는 비경제활동 청년인구 비율은 33.68%에서 38.36%로 증가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소는 특히 20대 초반에서 두드러진다. 20~2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58.3%에서 47.6%로 떨어졌다. 10년전만해도 20대 초반대중 일하는 청년이 10명중 6명이었으나 지금은 5명도 채 안 된다.

/연환뉴스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연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제약)비	취향어린(소형)비	마취취어린(소형)비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Steak 이용요금 별도편입

1. 프크 Steak 8,000원
2. 워킹데이 Steak 9,000원
3. 바프 Steak 10,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ungol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베리너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볼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bolo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열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